

오늘 2차 이산가족 상봉... 방문단 속초 집결

남측 137명 오늘부터 사흘간 北 가족과 상봉 6명 포기...광주 최명순·김해릉씨 2명 포함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11월 3~5일) 행사에 참가할 남측 이산가족 94명(상봉 신청자)과 몸이 불편한 상봉 신청자를 부축하기 위해 동반한 가족 43명 등 137명이 2일 오후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 모여 기본교육 등 준비 절차를 밟았다.

남측 가족들은 이곳에서 하루밤을 묵은 뒤 3일 오전 9시께 동해선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금강산 지구에서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 203명을 만난다.

이번 상봉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명순(85·광주시 동구 계림동)·김해릉(80·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 등 2명이 60년만에 북측의 가족을 만

나게 된다. 당초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신청자 가운데 최종 100명으로 추려냈지만 그 이후 건강악화 등 개인 사정으로 6명이 상봉을 포기했다.

전체 행사는 '2박3일' 일정으로 짜여졌지만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체상봉 2차례, 개별상봉 1차례·오찬 및 만찬 각 1차례(이상 각 2시간)에 작별상봉(1시간)까지 총 11시간에 불과하다.

첫 날인 3일에는 오후 3~5시 2시간 동안 금강산면회소 연회장에서 단체상봉을 하고 오후 7~9시 2시간 동안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둘째 날인 4일에는 금강산호텔에서 개별상봉(비공개)과 오찬을 한 뒤 오후



3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한 이산가족이 2일 오후 속초 한화콘도에 도착. 수속을 마친 후 의료진으로부터 혈액체크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 금강산면회소에서 다시 단체상봉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1시간 정도 개별상봉을 한다. 1일 끝난 '1

차 상봉'에서는 북측 97명(상봉신청자), 남측 436명의 이산가족이 재회했다. /이중행기자 golee@연합뉴스

“실력광주 명성 지킨 것 큰 보람”

5일 퇴임하는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학생 중심, 으뜸 광주교육’ 캐치프레이즈로 광주교육을 이끌어온 안순일 교육감이 5일로 4년 임기를 마친다. 안 교육감은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능 1등급 비율 6년 연속 전국 1위, 4년제 대학진학률 전국 1위의 업적을 일궈냈다. 체·덕·지(體·德·知)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퇴임을 앞둔 안 교육감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재임기간을 평가한다면.

▲학생 중심 으뜸 광주교육 2010프로젝트를 내세웠고 실천했다. 무엇보다 광주를 전국을 선도하는 ‘실력’ 도시로 이끌었다. 2009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대한민국의 교육특구는 강남 8학군이 아니라, 광주”라고 까지 말했다. 지난 2005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언어영역 13위, 수리 8위, 외국어 영역 8위였던 광주가 대학수능 1등급 비율 6년 연속 전국 1위, 4년제 대학진학률 전국 1위가 됐다.

공무만을 앞세우지 않았다. 체·덕·지(體·德·知) 교



는 법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장 교육감을 잘 보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장 교육감이 성공적인 교육감이 되는 것은 광주 학생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이 학생중심 교육행정,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줬으면 한다.

-임기 말 추진한 외교 설립 논란에 대한 심경은.

▲솔직히 외교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다는 지적은 서운하다. 4년 동안 숙성된 문제다. 언론보도, TV토론 횡수만 헤아려 봐도 알 수 있다. 임기 말에 조급하게 추진했다고 하는 데 그렇지 않다. 6·2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정부가 특목고 관련 훈령을 바꾼 탓에 새 규칙 만들고 법정 예고기간을 거치면서 40일 가량이 흘렀다.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외교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을 추진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특정 사학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총정이었다.

-교육계를 떠나는 심정이 남다른 것 같다.

▲물러나는 사람의 심정은 누구나 같다. 나는 44년 교육계에 몸담은 동안 온몸을 바쳤다는 자부심이 있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지인들이 정치적 행보를 권유하기도 했다. 교육감이 선거에 신경쓰면 광주교육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정치인’을 포기했다. 후학 양성에 혼신을 다했다는 자부심만은 양보하고 싶지 않다.

-향후 계획은.

▲교육계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광주가 아름다운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탬 생각이 다. 합창단, 합주단을 만들고, 지휘도 하고 싶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 국민 방한

李大統領과 10일 정상회담...한반도 정세 논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는 10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0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뒤 11~12일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 및 러

시아의 경제 현대화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서울 G20정상회의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8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같은 해 9월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 “G20 이전 FTA 합의 노력”

오바마 “정상회의 성공개최 적극 협력” 약속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11~12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 한미 FTA와 관련, 향후 세계의 자유무역주의를 촉진하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돼야 하고 G20 정상회의 전에 (FTA

체결을) 합의하는데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서울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을 “브라더(Brother)”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에 제2의 ‘엘 시스템’ 씨앗

교육감이 선거 신경쓰면 교육 망쳐

육이 그것이다.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는 체력과 덕성,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했다고 자부한다. 취임 전에는 체육시간이 없다시피 했다. 허약한 체력 때문에 비만이 많고, 성인병을 앓는 어린이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굳이 수영장이 없는 학교에도 수영시간을 갖도록 하고, 체육시간을 준수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도 학생들의 품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었다.

-가장 뜻깊었던 일은.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수석대변인이었던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미래는 가슴 따뜻한 우뇌형 인간이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기간 감성을 원천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역점 추진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초등생에 하모니카, 중학생에게 오카리나를 무상 보급한 ‘1학생 1휴대 악기 운동’도 이를 위한 것이다. 이들이 악기 하나 쯤은 다룰 줄 아는 문화도시 광주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광주에 제2의 베네수엘라의 씨앗을 뿌렸다고 자부한다.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창안한 ‘엘 시스템’은 가난과 폭력으로 죽어가던 베네수엘라의 어린이들을 음악으로 되살려낸 아름다운 혁명이다.

-장학금 교육감 당선인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장 신임 교육감은 8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분으로 광주교육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해 내리라 믿는다. 교육위원 재직 당시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공유하는 부분도 많았다. 지도자는 홀로 되지 않

베트남에 ‘한-베트남 평화의 마을’ 조성

오늘 준공...고엽제 피해자 2세 환자 80여명 입주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 피해가 가장 컸던 광남성 푸닝군에 고엽제 피해자와 2세 환자를 위해 ‘한-베트남 평화의 마을’이 조성돼 3일 오전 10시에 준공식이 열린다.

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준공

식에는 우부석 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류지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레민 안 광남성 인민위원장, 쩌 하임 베트남 재향군인회장, 오나영 주베트남한국대사관 공사, 상이군경회 회장, 현지 주민 등 150

여명이 참석한다.

준공식은 평화의 마을건립에 기여한 시공사 및 감리업체 대표,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평화의 마을 기부증서 전달, 테이프 커팅, 다과회 순으로 진행된다.

평화의 마을에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돼 부지 1만2천682㎡(전체 부지 3만2천㎡)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동 10개동과 회의실, 식당, 재활운동시설 등을 갖춘 마을회관이 들어섰다.

건립비용은 국가보훈처(18억원)와 상이군경회(2억원)가 지원했고, 부지는 베트남 광남성에서 제공했다.

보훈처는 “전쟁이 남긴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는 양국 간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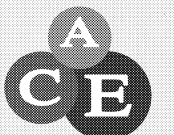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뿜어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산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게·목결림, 수직지림·수축병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